

살겨, 보릿겨 축산



이인형
전 축산시험장장

우리가 사료를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농후사료는 곡류와 밀기울 등의 겨 종류를 배합한 사료를 말하며 조사료는 풀 사료인 청초, 건초 및 매초(싸이레지) 등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것이 경제적인 동물인 가축의 먹거리이며 우리나라 축산산업이 산업으로서 정착되지 아니한 1950~1960년대, 아니 1970년대까지도 외화가 부족하여 배합사료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아가시아 잎 등을 채취한 것을 정부가 수매하여 배합사료공장에 배분을 하고 소 사료용 배합사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닭이나 돼지사료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고구마 싸이레지, 칩 잎 분말, 알과과 분말 등의 돼지와 닭 사료효과를 구명하는 시험도 많이 하였다. 물론 그 당시에 급여하는 사료의 질이 좋지 않고 급여량도 충분하지 않아 어린 가축의 성장은 물론이고, 큰 가축의 생산성도 저조하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할 정도로 낮았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밀기울과 쌀겨 및 보릿겨를 시중가격보다 배합사료공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배분, 아니 배급하여 배합사료제조에 사용하도록 하였

는데 각 사료공장에서는 겨 종류인 강류(糠類)를 많이 배정을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하였다고 한다. 이시기에 농림부 축산국의 사료과 검사계에서는 밀가루와 쌀겨 및 보릿겨를 배합사료공장 및 각 축산관련 공공기관에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배합사료검사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로 알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류의 배급을 적게 받으면 배합사료생산량을 줄여야하니 배합사료업체로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강류(糠類)를 많이 배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하여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 시절에는 벼, 보리 등을 수매하여 도정과정에서 생산한 쌀겨와 보릿겨 및 제분업체에서 밀을 수입하여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밀기울을 사용처에 배분하는 업무를 정부에서 담당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농림부 축산국의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을 수행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이기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던 시절, 정부예산이 없으니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강류를 축산농가 등에게 일정량을 배급하는 조건으로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왜? 강류의 배급에 대하여 설명하느냐 하면, 1950년대는 여물축산, 뜰 물 양돈, 낙곡양계의 시대였는가 하면 1970 ~1980년대는 강류사료에 의한 축산시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1980년대에 농림부에 근무하면서 1980년도에는 제3차 석유과동으로 우유소비가 둔화되어 분유과잉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젖이 적게 나는 젖소를 도태하는 축산농가에 두당 쌀겨와 보릿겨를, 1981년도에는 소 값 파동을 막기 위하여 도축용 소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는 축산농가에 두당 쌀겨와 보릿겨를 일정량을 배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추진하였으니 그 당시의 사료사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가서 옛날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수원에 있는 축산시험장에서 5배수 추천에 의한 연구관경쟁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국립종축장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시켜주겠으니 오라고 하여 단독추천을 받아 연구관으로 승진시험을 보는 조건으로 1971년 1월 15일자로 국립종축장 대가축과 제3우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제3우사에는 젖을 착유하는 어미 젖소 200두가 있는데 연구관을 내가 보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능력검정 등의 연구사업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조사료인 건초와 매초(담근먹이=싸이레지)는 다 바닥이 났고, 조사료는 벧짚만을 먹고 있었는데 젖소들이 잘 먹지를 않자 젖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하여 벧짚을 2~3동강이로 썰어서 소가 물을 먹는 수조에 소금을 풀어 녹인 후 벧짚을 불려서 먹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생각한다면 거짓말 같은 현실이 존재하였었다.

그런가 하면 농후사료는 옥수수 등 곡류는 곡류분쇄기만 설치되어 있는 국립종축장 사료공장에서 분쇄한 곡류와 배정받은 밀기울 등의 강류를 배합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삽으로 섞어서 급여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질의 농후사료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니 젖 생산은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었고 현장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항상 긴장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립종축장이 신설된 배경 등을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축산은 한우가 중심이었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1962년부터 적극적으로 한우증식사업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사육두수는 1963년도 1,363천두로 사상최고 두수로 증식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67년에는 1,243천두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단백질공급원인 축산식품을 더 많이 공급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박정희대통령께서 1968년 5월 10일, 권농일(勸農日)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미맥(米麥: 쌀과 보리)만으로는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67% 이상의 산지 중에서 개간이 가능한 곳을 초지로 개발하여 축산진흥을 이룩하여야 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축산진흥을 제창하신 후 1968년 8월에는 충청남도 성환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순시하시었고, 1968년 12월에는 축산시험장이 있는 충청남도 성환에는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국립종축장이 신설되었으며, 1969년 9월 5일에는 국립종축장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목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산시험장은 농촌진흥청이 있는 수원의 화산지장 자리로 이전을 하여 축산연구기관이 확대하여 개편되면서 1969년 중반에 가서야 인사가 마무리되었고 나는 축산시험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다가 국립종축장으로 전출을 하게 된 것이다.